**과제문③**

**길들여짐의 의미**

“그 별에 사냥꾼도 있니?”

“아니.”

“그거 좋은데! 그럼 닭은?”

“없어.”

“역시 완벽한 건 없어.”여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곧 하던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내 생활은 단조로워. 나는 닭을 사냥하고, 사람들은 나를 사냥하지. 모든 닭들은 비슷하게 생겼고, 모든 사람들도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서 난 조금 지루해.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햇빛을 받는 것처럼 환해질 거야.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발소리와 다른 네 발소리를 구별하게 되겠지. 다른 사람들의 발소리는 나를 다시 굴속으로 들어가게 할 거야. 하지만 네 발소리는 음악처럼 나를 굴 밖으로 불러낼 거야. 그리고 저기를 한 번 봐! 저기, 밀밭 보이지? 나는 빵을 먹지 않아. 그래서 밀은 나에게 아무 쓸모가 없어. 밀밭을 보아도 머리에 아무것도 떠오르는 것이 없지. 정말 슬픈 일이야! 하지만 네 머리칼이 황금빛이잖아. 그래서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멋질 거야! 황금빛 밀밭을 보면 네가 생각날 테니까. 그리고 밀밭에서 부는 바람도 좋아하게 될 거야…….”

여우는 이렇게 말하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어린 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출처] 『어린 왕자』 중에서 일부 발췌**

課題文③

**飼われる意味**

「その星には猟師もいるの？」

「いや。」

「それはいいね。じゃあ鶏は？」

「いないよ。」

「やっぱり完璧なものは無いんだね。」キツネがため息をつきながら言いました。

しかし、キツネは元の話に戻りました。

「僕の生活は普通だよ。僕は、鶏を捕まえて、人間たちは僕たちを捕まえる。鶏はみんな似てるし、人間たちもみんな似てる。だから僕は少し退屈なんだ。だけど、君が僕を飼うならば、ぼくの生活は日の光を浴びるように明るくなるんだ。僕は他の人間たちの足音とは違う君の足音を聞き分けれるようになるだろう。他の人間たちの足音は、僕をまた洞窟の中に入らせるだろう。だけど、君の足音はまるで音楽のように僕を洞窟の外へと呼び出してくれるよ。そして、あそこを見て！あそこの小麦畑見えるでしょ？僕はパンを食べない。だから僕には小麦は要らない。小麦畑を見ても頭の中に何も浮かばないんだ。本当に悲しいことだよ！だけど君の髪の毛が黄金色じゃないか。だから君が僕を飼うとかっこいいはずだよ！黄金色の小麦畑を見たら君を思い出すから。そして、小麦畑で吹く風も好きになるよ…」

キツネはそう言って口を閉じました。そして、ずっと星の王子さまを見つめていました。

**-[引用] 『星の王子さま』 一部抜粋**